

# 부안 점방산 봉수 국가지정문화재 되다

## 사적 제5로 직봉' 지정 예고

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을 포함한 서남해안 노선을 따라 설치된 봉수 유적 16곳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로 직봉'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부안 점방산 봉수는 여수 방담진 돌산도봉수에서 시작하는 제5로 직봉노선의 스물여덟번째 연봉수이다.

제5로 직봉 대부분의 봉수는 왜구가 침투하는 해로를 감시하는 탁월한 위치에 임지하고 있고 수사(水使)의 관리 아래에 있는 요새 기능에 중점을 둔 노선이다. 특히 봉수유적은 조선의 중요 군사·통신시설로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경국대전, 각종 관찬 사찬 지리지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봉수유적은 이러한 기록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점방산 봉수 유적은 조선시대 단종 2년(1454) 이전에 설립되어 후기에 일시 폐봉되었다가 다시 복설되어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까지 국가경영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된 봉수이다.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연대·연조와 방호벽, 창고 등 봉수의 후방·거화와 방호 및 저장시설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며, 과거 통신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제5로 직봉'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예고할 전망이다. 예고기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이며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점방산 봉수 유구가 사적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봉수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부안 봉수 유구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 (사진=부안군청 제공)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 열·혼 짓든 명작 '한눈에'

##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내달 1일부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누리미투 기획전시실에서 2023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유자작품전'은 1973년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올해로 50년을 이어 온 행사로, 우리나라 전통기술의 정수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고 기량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100명의 작품을 △ 예와 악의 향연, △ 삶과 예술의 향연, △ 멋과 갖춤의 향

연'이라는 세 개의 향연(饗宴) 융성한 잔치'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를 통해 오늘날의 기술과 작품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전승과 창조를 기록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063-280-145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소중한 무형유산을 계승해 온 전승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겨질 기대한다"며 "전승자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무형유산의 품격과 그 속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순창군 옥천골 미술관, '이철규 작가-상생:합展' 개최

### 내달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순창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순창 공립 옥천골미술관 전시실에서 '이철규(사진) 작가 초대전 - 상생:합展'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이철규 작가 초대전'은 상생(相生)과 합(合)이라는 주제로 금(金)이라는 물질적인 것과 자연과 하나 되는 정신적인 것을 화면이 상징적으로 배치했다. 이를 통해 부자와 빈자, 자연과 인간 등의 조화로운 합(合), 즉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상생(相生)의 장을 펼쳐내는 이철규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또한, 다크룸에 그려진 수묵화와 그 위로 입혀진 금박으로 표현한 독도무진도와 108 만인



불상 등의 수준 높은 회화작품과 설치미술 작품을 통해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문화와 예술이 주는 황홀경에 흠뻑 취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회 첫날인 9월 1일 오후 4시에는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이철규 작가의 금박 팬아트 시인회가 예정되어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으로, 자세한 사항은 옥천골 미술관(☎063-650-1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과학·인문 통섭 시대를 전망하다

'돌로미티 알프스문명기' 전북대 강길선 교수 네 번째 수필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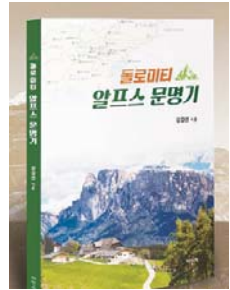
강길선 전북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가 네 번째 수필집 '돌로미티 알프스문명기'를 출간했다.

이는 통섭 시대에 대한 전망과 과거의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 사상적 자유성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풀어나갈 수필집이다. 통섭은 그간 세분화됐던 전문분야를 다시 한번 묶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

작가에 따르면 이곳은 송고하고 거대한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신성한 법칙을 가르치는 하늘의 섬, 귀중한 보석상자 등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형언할 수 없는 곳이다.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이고, 근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온갖 기상천외한 천재들이 노닐던 곳이다. 근대 사상과 근대 음악·미술이 싹튼 곳이다. 유럽이 현재의 국가 체제를 갖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이다. 1800년대 중반까지는 공국 형태로 존재하다가 현재의 국경으로 갖추게 된 것은 20여 년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탈리아라고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국경과 접한 곳은 혼란된 문화 행태가 방문객들을 더 즐겁게 한다. 알프스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국경선이 놓



강 교수 수필집 '돌로미티 알프스문명기'

미사여구와 단어도 형언할 수 없다. 그만큼 장엄하고 깊은 곳이라. 특히 생체의 공학자이자 교육자, 수필가로 활동해 온 강 교수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틈틈이 유럽 여행을 했고, 15년 전부터 완주군 소안면 해월리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겪고 생각한 다양한 내용을 매일 매일 글로 풀어내며 지역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이번 책은 지난 7~8년 동안 돌로미티 알프스를 여행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한편 강길선 교수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여도도 고등학교, 인하공대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생체의공학과 박사를 받았다. 원래 꿈은 세계 무전여행가나 목적이 성취된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이 꿈을 접고 전북대학교 교편자나 공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지방대의 신생 과정에서 학생들의 취직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석·박사 250여 명을 배출, 10여 명의 교수를 양성하고 제외회사·화학회사에 100% 취직을 시켰다. /장은성 기자

# 한-몽골 전통문화 확산·진흥 논의 | 국립민속국악원, 주몽골한국대사 등과 면담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최근, 한국-몽골간 문화교류 및 협력을 위해 주몽골한국대사관 김중구 대사와 한국관광공사 김광식 몽골지사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면담은 국립민속국악원과 몽골 한국대사관 및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문화사업의 상호 연계 협력으로 한-몽간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전통문화 확산과 진흥을 위한 논의 및 기관 사업 상호 홍보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국립민속국악원 김종현 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나는 대화를 토대로 한-몽간 전통예술 콘텐츠 활용을 위한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은 최근, 한국-몽골간 문화교류 및 협력을 위해 주몽골한국대사관 김중구 대사와 한국관광공사 김광식 몽골지사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 소리문화전당, 내달 한달간 '루프탑 시리즈' 3부작 나눠 진행

## 첫 테마로 '스탠딩 B구역' 공연

### 감성 등 갖춘 신진 뮤지션들 참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9월 한달간 전시장 옥상에서 '루프탑 시리즈'를 총 3부작으로 나눠 4팀의 지역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루프탑 시리즈'는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가능성을 무대에서 구체화하고 단



독공연을 제작 지원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30일 전당에 따르면 첫 번째 테마 '스탠딩 B

구역'은 야외 공간을 B구역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공간을 통한 자유로운 형식을 담은 스탠딩 단어가 결합된 타이틀이다. 감성, 개성, 실력 3박자를 두루 갖춘 신진 뮤지션들이 참여해 새로운 공연 연출로 다양한 공연을 시도하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콘서트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공연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3-270-7844)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사업 공모

## 내달 5일까지... 도내 단체 총 3곳 내외 교류활동 필요 직접 경비 일부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9월 5일까지 2023년 문화예술교육 국제 교류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0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진행되는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단체 대상으로 국외 문화예술교육 현장 탐방 및 교류 기회 제공을 통해 선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도내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술교육분야 예술인들에게 보다 확대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기획됐다.

특히 도내 문화예술교육 단체 총 3개소 내외 대상 국제 교류 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항공권·숙박비 등)를 일부 지원하며, 9월 중 심사를 거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차

등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단체는 9월 말부터 11월까지 해외 문화예술교육 포럼·세미나·워크숍 등 국제 문화예술교육 행사를 참여하거나, 해외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가와 교류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국제 교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단체별 교류 활동을 토대로 도내에서 적용가능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단체별 문화예술교육 경험에서 비롯한 고민과 탐구점을 바탕으로 국외 문화예술교육 탐방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재단 교육문화팀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063-230-746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배리어프리 음악극 '친절한 돼지씨' 내달 8일 부안예술회관서 공연

부안군은 배리어프리 음악극 '친절한 돼지씨'를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에서 두차례 선보인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제작한 음악극 '친절한 돼지씨'는 2022 (제)한글국립예술위원회의 무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재탄생된 배리어프리 음악극이다.

이 공연은 친절한 돼지씨와 친구들이 '꿈의 안개'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작 공연이다.

티켓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9월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부안군민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